

현대차, 버스정류장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다

현대차 고객으로 구성된 '현대모터클럽' 형성 초현리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나서

현대자동차 동호회 '현대모터클럽'이 현대차와 함께 지난 7일 강원도 횡성군 청원면 초현리 버스 정류장의 환경 개선 활동 '빌드 스테이션'을 실시했다.

'빌드 스테이션'은 현대차 고객으로 구성된 동호회 '현대모터클럽' 봉사단이 기획하고 현대차가 지원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버스정류장에서 긴 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교통 소외지역 어린이·주민을 위해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도록 버스 정류장을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횡성 초현리는 하루에 버스배차 횟수가 11회뿐인 데다 배차간격 또한 불규칙해 도착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이에 현대차 고객 봉사단 50명이 초현리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에 나섰다.



버스 정류장 개선 활동 중인 현대자동차 고객 봉사단 '현대모터클럽' 회원들. /현대차

현대차 고객들이 모여 만들어진 현대모터클럽 봉사단은 ▲문화 소외 지역 찾아가는 영화상영 ▲아파트 단지 내 안전표시 그리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영화제 ▲긴급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기획해 자발적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교통 소외지역 버스정류장 개선 봉사는 '현대모터클럽' 이자발적으로 운영한 봉사활동으로 올해로 2회를 맞이했다"며 "앞으로도 현대차를 사랑하는 고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두산연강재단 두산연강학술상 의학논문 부문 시상

두산연강재단이 지난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8 두산연강학술상 의학논문' 부문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인 이주명 교수(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에게 상금 3000만원과 상패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수상논문 제목은 '관상동맥질환자에서 3혈관 분획혈류예비력이 갖는 예후인자로서의 의미'로 2018년 3월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간한 내과학 분야 SC I 저널인 '유리피인 하트 저널'에 게재됐다. 관상동맥 협착의 혈류장애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분획혈류예비력의 임상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논문이다.

두산연강학술상 의학논문 부문은 한국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젊은 의학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6년 제정됐다. /정연우 기자 yw964@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오른쪽)이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두산연강학술상 의학논문 부문 시상식에 참가해 수상자인 이주명 교수(가운데)와 이왕종 신문 '청년 의사' 발행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그룹



8일 오전 맥심 플랜트에서 열린 맥심 티오피 모델 원빈과 함께하는 '티오피 시그니처 미팅'에서 원빈과 소비자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서식품

동서식품 티오피 '출시 10주년' 팝업스토어 성료

동서식품은 프리미엄 커피음료 '맥심 티오피(Maxim T.O.P)' 출시 10주년을 맞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서울 한남동의 '맥심 플랜트(Maxim Plant)'에서 운영한 '맥심 티오피 팝업스토어'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8일 밝혔다. 맥심 티오피는 100% 최고급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한 프리미엄 커피음료로 첫

선을 보인 지 10년만에 연 매출액 1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메가 브랜드다. 동서식품은 10년동안 변함없이 맥심 티오피를 사랑하는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맥심 티오피를 더 특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맥심 티오피 팝업스토어를 마련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기업은행-비씨카드 소상공인 지원 동반자금융 업무협약

기업은행과 비씨카드가 지난 6일 을지로 본점에서 IBK 동반자금융 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은 휴일에도 카드매출 대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3분기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매일 카드매출 대금을 입금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빠듯한 자금 사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오늘의 운세 7월 9일 (음 5월 28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펴라. 60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마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한다. 72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84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 소** 49년생 감정절제를 잘 해야 일이 성사된다. 61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73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셔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85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 호랑이** 50년생 가정의 화목이 성공의 중요 요소. 62년생 강 씨 귀인으로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 74년생 길 떠나는데 신발 끈이 풀려 지체된다. 86년생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니 무슨 일이든 참여하자.
- 토끼** 51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언행에 주의하라. 63년생 넓게 바라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방법도 보인다. 75년생 명성이 같았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 보자. 87년생 김칫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를 본다.
- 원숭이** 52년생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 64년생 뜻밖의 초대가 있겠으나 당신을 유혹하는 것이니 주의. 76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려고 하면 원망을 듣게 된다. 88년생 영원한 친구는 존재하지 않으니 조심.
- 뱀** 53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도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65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 신경 쓰자. 77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라. 89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자.

- 말** 54년생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법. 66년생 자손이 큰 상을 받아 오니 마음이 날아갈 듯하다. 78년생 가족과 대화중에 의견대립이 생길 수 있다. 90년생 의욕이 앞선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한다.
- 양** 55년생 글치 아픈 일은 배우자와 상의해서 처리하면 잘 해결. 67년생 시작이 좋으면 마무리도 산뜻하다. 79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다. 91년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나 조력자가 옆에 있어서 다행.
- 원숭이** 56년생 속이 상해도 자식이나 참아야 한다. 68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가 내리는 격이니 조심. 80년생 오늘 준비하면 내일은 덜 힘들다는 걸 명심. 92년생 말미 친구가 거래의 걸림돌이 되니 유의하자.
- 닭** 57년생 아랫사람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69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81년생 배우자가 나에게 가장 큰 조력자이다. 93년생 둘다리도 두드러보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 개** 58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실수가 없다. 70년생 하니를 투자해도 열 개로 돌아오는 날이다. 82년생 공과 사를 분명히 따져야 하는 날. 94년생 산도 좋고 물도 좋은 데가 머물 곳은 아니니 실망스럽다.
- 돼지** 59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한발 물러서서 생각. 71년생 결과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83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마음이 울적. 95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성공적으로 하던 일을 마무리.

김상회의 四季 방생(放生)의 의미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에서는 7월의 1일 첫째 일요일 법회를 방생법회로 진행했다. 곧 다가올 백중기도 입재도 시작될 터 방생법회를 병행 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장마가 시작된 터라 쏟아지는 빗줄기로 인해 걱정도 되었지만은 오히려 불어오는 풍성한 물줄기 속으로 물고기를 보내주니 가뜩이나 물 만난 메기들이 기운차게 물속으로 헤엄쳐 간다. 소규모의 방생 재였지만 삼십 명 넘게 오신 신도님들과 자애와 신심이 넘치는 귀중한 시간을 나누면서 보람과 감회 역시 새로웠다. 방생의 의미는 잘 알려져 있듯 잡힌 물고기나 새 등 약한 짐승이나 동물의 산 것들을 강물이나 산과 들에 다시 놓아 살려 주는 일을 말한다. 불교의 오계 중 첫째 계율인 "산목숨을 해치지 말라"라는 계율의 적극적 실천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불교전통의 국가에서는 예로부터 사찰을 비롯하여 많은 불교도들이 방생 제나 방생기도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각 사찰에서는 방생기도를 열고 봉행하고 있다. 개개인 신자들도 가족 중에 생일이 있거나 하면 강가나 바닷가 등 가까운 물가에 물고기들을 방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매나 조 등 새들이 즐겨먹는 곡식들을 산이나 들에 뿌려서 모이를 먹도록 하는데 이 역시 방생의 한 방편인 것이다. 방생을 한답시고 외래종 물고기들을 사서 아무 물에나 가서 놓아주는 것은 오히려 생태계의 교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 자기가 살던 곳의 물과 다른 물에서는 오히려 물고기들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또 이러한 방생 수요를 위해 어부들이 일부러 더 많은 물고기들을 잡는다며 부정적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먹기 위해 팔리지 못하면 어시장 내에서도 오래 살지 못하고 죽기 마련인이라 물고기의 원래 고향인 강물이나 바다로 보내주는 것은 종교적 취지나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 마땅한 일이라 본다. 또한 윤회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방생하여 놓아준 물고기가 행복한 삶을 살다가 명을 마치고는 부디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 부처님 가르침이나 여러 성인의 가르침에 인연이 되어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와 발원을 해주니 분명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최소한 육류나 어류 등 산 생명을 즐겨 먹는 생각을 잠시라도 멈출 수 있으며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생명의 소중함은 나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명존중의 실천인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만큼 가장 값있고 훌륭한 일이 어디 또 있으랴?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4	5			
6				8				
		2	5	3				
1		4	9	3				8
9	1			2				
5		8	2	6				1
		4	9	1				
2				5				
	4			1	8			

				8				1
								5
			6	1		4		9
	4	1			6			
	2			4				9
7			8					1
		3	8					6
	8	6		2				3
2			6	9	1			5

스도쿠 정답								
6	8	1	5	2	4	7	9	3
7	9	5	4	9	8	6	2	1
9	2	4	1	6	7	5	8	3
1	6	9	2	8	4	1	5	7
5	7	2	9	1	8	6	3	4
8	4	1	6	7	5	9	1	2
4	9	6	5	2	1	7	8	3
3	1	8	7	4	6	2	9	5
2	5	7	8	1	9	4	3	6
5	8	1	6	9	4	2	7	3
4	6	2	5	7	9	8	1	3
9	7	4	1	8	1	6	5	2
7	1	5	9	8	2	6	4	3
6	4	8	7	1	5	2	1	9
3	9	4	6	1	7	5	8	2
2	6	7	5	1	9	8	4	3
8	5	4	1	2	6	1	9	7
1	9	1	8	7	4	5	2	6

문제 제공= 보너스